

#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 애착, 학교생활적응 행동,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구조

박현영 · 강승희<sup>†</sup>  
(영도중학교 · <sup>†</sup> 부경대학교)

## The Relationships of the Perceived Attachment, the School Adjustment and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Middle School Students

Hyun-Young PARK · Seung-Hee KANG<sup>†</sup>  
(Young Do middle school · <sup>†</sup>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ausal relations among attachment, and school adjustment influencing psychological well-being in middle school students. The data contains 564 middle school students. The statistical techniques were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o summarize the results, the correlations among attachment, school adjust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were significant. The results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how that students's attachment and school adjustment had direct positive influence on psychological well-being. These results imply that perceived attachment, school adjustment influence adolescents' psychological well-being.

*Key Words : Attachment, School adjustment, Psychological well-being*

### I. 서론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2009년 4~8월 전국 470개 초·중·고교생(초등학교는 1·4학년, 중·고교는 1학년) 12만615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9 학생건강검진 선별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17.5%에 해당하는 2만1497명이 정신건강 정밀검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보다 4.6%포인트 증가한 수치로서, 정밀검진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울·불안·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정서·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특히 청소년기의 우울증은 불안장

애, 등교 거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인터넷 중독 등 다양한 정신질환과 함께 나타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세계일보, 2009. 11. 01).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청소년기에 맞게 되는 사춘기의 다양한 변화와 함께, 우리나라 상황에서 그들이 겪게 되는 학업, 입시 및 진로문제 등과 같은 고유한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이 크다. 즉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청소년들은 불안이나 우울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이연숙, 2005). 따라서 학교에서는 이들의 심리적 문제를 완화시키고 학교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여

<sup>†</sup> Corresponding author : 051-629-5245, sheekang@pknu.ac.kr

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최근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여러 연구자들이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곽윤정, 2010; 김정문, 2008; 문영주, 2009; 문은식, 2005; 유주연, 박경, 2010; 하태민, 2008; Ryff, 1989; Ryff & Keyes, 1995; Shek, 1997. 2002). 특히 이러한 연구들은 최근 높아지고 있는 인간의 행복에 대한 관심, 그리고 건강한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정신적 욕구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욱 많아지고 있다. 심리적 안녕감이 행복이나 만족과 같은 개인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곽윤정, 2010).

심리적 안녕감은 개인이 잘 기능하여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으로(Ryff, 1989), 이러한 심리적 안녕감은 자기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개인적 성장, 삶의 목적,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이룰 때 비로소 성취되는 것이다(유주연, 박경, 2010).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높은 사람은 '높은 삶의 만족도, 많은 정적 정서 경험, 적은 부정적 정서 경험'의 상태에 있다. 또한 심리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은 환경을 선택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주위환경에 대한 통제력과 삶의 목적이 있으며,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려는 동기가 높은 사람이다(차경호, 2004).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주로 심리적 안녕의 개념 및 측정의 타당화와 관련하여 시행되었다(김혜원 외, 2004; 차경호, 2004; Ryff, 1989; Ryff & Keyes, 1995). 이후 심리적 안녕감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Ryff, 1989; Ryff & Keyes, 1995; 김혜원, 홍미애, 2007; 차경호, 2004; 양병한, 2003)들을 거쳐 심리적 안녕감과 사회, 심리적 변인들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고재홍, 조기영, 2003; 김민정, 2006; 김정문, 2008; 문영주, 2009; 문은식, 2007; 신주연, 이윤아, 이기학, 2005; 유주연, 박경; Shek, 1997. 2002; Liu, Shono, Kitamura, 2009)로 이어지고 있다.

이 중에서 그동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심리적 안녕감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심리적 안녕과 밀

접하게 관련된 변인으로 개인의 심리적 변인 예컨대, 우울(김유리, 2009; 양명순, 하정희, 2006), 자아존중감(양명순, 2007; 이홍표, 이홍석, 2006; 주경희, 2010), 부모와의 애착관계(김정문, 2008; 유경자, 2005; 정민, 이미라, 노안영, 2006)등이 심리적 안녕과 관련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개인을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받게 되는 영향을 나타내는 사회적 변인으로 사회적지지(노혜숙, 신현숙, 2008; 문은식, 김충희, 2002; 전혜리, 2007; 채수옥, 2010), 학교생활 적응(문영주, 2009; 문은식, 2002)과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연구가 인간의 다른 심리적 특성에 비해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이기 때문에 심리적 안녕감과 다른 심리사회적 변인들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들은 다소 부족한 편이다. 특히 최근 청소년의 여러 심리적 문제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때,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심리사회적 변인들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중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그들이 지각하는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을 관련 변인으로 상정하였다. 학교생활적응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과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백혜정, 2007; 이경화, 정혜영, 2007; 이지민, 2009). 따라서 학교생활적응은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녕감과 유의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국내에서 이루어진 중, 고등학생의 심리적 안녕감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단 몇 편에 불과한 실정이며(김기형, 2006; 문은식, 김충희, 2002), 이들 논문에서 학교생활적응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 대한 설정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문은식, 김충희(2002)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행동

을 종속변인으로 하고, 심리적 안녕감을 포함한 인간관계, 학업동기, 학습사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학교생활적응행동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상대적 공헌도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김기형의 연구(2006)에서는 학교생활적응을 독립변인 중 하나로,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가족관계, 교우관계, 학교생활적응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상대적 공헌도를 살펴보고 있다.

김기형 연구(2006)의 가정은 학교적응을 잘 하는 청소년이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이다. 학교적응에 실패한 청소년은 자신의 내적인 상태와 외부인 학교의 다양한 요구 사이에서 부조화를 경험하기 때문에(김동일, 2004), 적응을 잘 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환경통제력이나 개인적 성장과 관련되는 심리적 안녕감의 측면에서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낮을 수 있다는 가정이다. 이러한 가정의 근거는 학업성취 수준별로 학교생활에서 삶의 질 수준에 차이를 보인다는 점(김의철, 박영신, 2004), 그리고 청소년이 여러 가지 환경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도 학교적응을 잘하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비행정도가 낮다는 연구(신현숙, 2004) 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이러한 가정에 근거하여 실시된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므로 학교생활적응이 심리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한 연구는 경험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대인관계와 심리적 안녕감을 예측하게 해주는 성격특질로 애착을 들 수 있다(김정문, 2008). 애착은 가까운 사람과 연결되게 하는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정서적 결속이다(Ainsworth, Blehar, Waters & Wall, 1978; Bowlby, 1973).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긍정적인 애착형성은 자녀들에게 바람직한 대인관계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게 하며, 다음 단계로의 적응을 위한 중요한 발달 과업으로 지적되고 있다. 애착이 안정적으로 형성된 아동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기술과 또래와의 유능한 상호작용에 기여하는 능력을 배우게 되

고, 조화롭고 협조적으로 행동하여 또래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다(Cohn, Patterson & Christopoulos, 1991). 그 결과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한 아동은 또래, 교사와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학업과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의 적응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유은희, 1990; 이은경, 1995; 이희영, 하경선, 2010). 이는 청소년들의 애착이 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어 심리적 안녕감과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부모에 대한 안정된 애착관계의 형성은 학업성취, 학습동기, 사회적 관계, 정서적 안정, 자아존중감, 학교규칙 준수 등을 향상시켜서 청소년들로 하여금 학교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yan, Stiller, & Lynch, 1994).

그러나 이러한 가정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국내에서 부모애착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청소년 대상으로 부모애착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를 살펴본 김정문(2008)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이 대상이었다. 그의 연구에서는 부애착, 모애착, 친구애착과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애착 수준에 따른 차이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대상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날 것임을 예측할 수 있겠지만, 경험적인 연구를 통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이 지각하는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와 함께 청소년의 애착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함께 수행될 필요가 있다. 부모에 대한 안정적 애착을 형성한 청소년은 가정 밖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거나 정서를 경험하거나 표현할 때, 또는 인지적 과제를 수행할 때 적절한 자기조절 전략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곧 학업성취와도 유의한 관계를 갖게 되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게 된다(Eccles, Wigfield, & Schiefele,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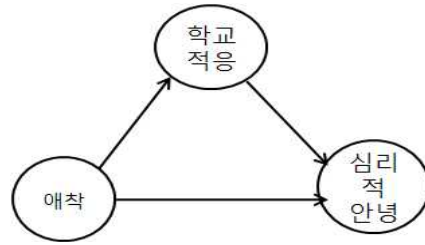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수행된 애착과 학교생활 적응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 의하면,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은 학교생활적응에서 가장 좋은 예측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부모와의 애착이 강할수록 청소년의 학업과 교우관계 등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신현숙, 임말란, 2005; 이사라, 박혜원, 2005; 조은정, 2009; Kenny & Donaldson, 1991; Larose & Boivin, 1998; Mattanah, Hancock, & Brand, 2004; Vivona, 2000). 이처럼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애착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관계를 보고하고 있지만, 애착과 학교생활적응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에서 학교생활적응이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를 매개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애착, 학교생활적응 및 심리적 안녕감간의 종합적인 관계 구조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과 학교생활적응 그리고 부모애착을 함께 연구한 경우가 없었고, 특히 심리적 안녕감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구조에서 심리적 안녕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국내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적응을 통해 심리적 안녕감을 얻을 수 있다는 가정(김기형, 2006; 김동일, 2004; 김의철, 박영신, 2004; 신현숙, 2004)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애착, 학교생활적응 및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 구조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해 어떤 변인에 더욱 관심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 하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가 제기되었다.

첫째,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부모 애착, 학교생활적응 및 심리적 안녕감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둘째,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부모 애착, 학교생활적응 및 심리적 안녕감간의 가설적 구조 모형

([그림 1] 참조)의 적합성은 어떠한가?



[그림 1]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 변인들간의 가설적 구조모형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은 부산지역에 거주하는 3개 중학교 1,2,3학년으로 총 564명이다. 3개 학교에 배부된 설문지는 최초 600부였으나, 이중 585부가 회수되었으며, 이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것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총 564부가 본 연구에서 분석되었다. 연구에 포함된 학생은 남학생이 296명(52.5%), 여학생이 268명(47.5%)이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194명(34.4%), 2학년이 185명(32.8%), 3학년이 185명(32.8%)으로 이루어졌다.

### 2. 측정도구

#### 가. 심리적 안녕감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Ryff(1989)가 개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 Scale, PWBS)를 김명소 외(2003)가 한국어로 번안한 것을 이용하였다. 원척도는 자아수용 8문항, 긍정적 대인관계 7문항, 자율성 8문항, 환경지배력 8문항, 삶의 목적 7문항, 개인적 성장 8문항으로 총 4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문항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김기형(2006)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4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5점 척도로 응

답하도록 되어 있다. 부정적 진술문항은 역점수로 환산하였으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음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심리적 안녕감 하위요인 각각의 Cronbach's  $\alpha$ 값은 개인적 성장 .56, 자아수용 .76, 긍정적 대인관계 .74, 자율성 .52, 삶의 목적 .70, 환경지배력 .7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신뢰도가 .70이상으로 나타난 4개의 하위 변인인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삶의 목적, 환경지배력만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 나. 부모애착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부와 모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가 10~20세를 대상으로 제작한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IPPA)를 수정한 개정본(IPPA-R)을 옥정(1998)이 번안하여 사용한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는 부모 애착, 또래 애착 척도로 구성된 원척도를 수정하여 부와 모의 애착을 분리시켜 측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IPPA-R은 자기보고식 질문지로서 Bowlby가 제안한 애착인물에 대한 정서의 질적 특성이나 차이에 기초하여 제작되었으며, 유의미한 애착인물에 대해 느끼는 안정성의 수준을 평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IPPA-R은 신뢰감, 의사소통, 소외감의 3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진다. 부와 모에 대한 애착척도는 부, 모 같은 내용으로 각각 25문항이며, 각 하위 차원별 문항 수는 신뢰감 10문항, 의사소통 9문항, 소외감 6문항이다. 이 검사는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총점수의 범위는 25-125점이다. 부정적인 문항은 역 채점을 하기 때문에 점수가 높을수록 부, 모와의 애착이 안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아버지에 대한 애착의 하위요인 각각의 Cronbach's  $\alpha$ 값은 의사소통 .83, 신뢰도 .88, 소외감 .62이었으며, 어머니에 대한 애착 하

위요인 각각의 Cronbach's  $\alpha$ 값은 의사소통 .81, 신뢰도 .87, 소외감 .6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에서 Cronbach's  $\alpha$ 값이 .70이상인 의사소통과 신뢰도 요인만을 합쳐서 부애착과 모애착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부, 모애착에 대한 Cronbach's  $\alpha$ 값은 부 애착 .92, 모 애착 .92로 나타났다.

#### 다. 학교생활적응

본 연구에서 학교생활적응의 측정은 청소년의 학업적 적응행동, 사회적 적응행동, 정의적 적응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된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문은식(2002)이 개발한 학교생활 적응행동 검사지를 참고하여 정기영(2006)이 학습동기(5문항), 학교(3문항), 친구(4문항), 교사(3문항)의 4영역으로 재구성한 검사로서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검사는 5점 척도로 이루어진 자기 보고식 검사로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값은 학습동기 .81, 학교 .83, 친구 .71, 교사 .83이었으며 전체는 .87로 나타났다.

### 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12.0 프로그램과 AMOS ver 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치의 유의도는  $p < .05$  수준에서 검증되었다.

먼저 주요 변수를 대상으로 Cronbach's  $\alpha$ 계수를 통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변인들의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과 자료의 이상치, 정규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셋째,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정하여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적합도 지수인  $\chi^2$ , TLI(Tucker Lewis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및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chi^2$ 값은 표집크기에

민감하여 표집을 클 때 유의하므로 무시하였다. 일반적으로 TLI, CFI는 .90이상이며, RMSEA가 .05~.08이면 괜찮은 적합도를 가진 모형으로, RMSEA가 .08~.10이면 보통 적합도를 가진 모형으로 해석하므로(홍세희, 2000), 본 연구에서도 TLI, CFI, RMSEA를 중심으로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주요 변인들간의 기술통계 및 상관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애착, 학교생활적응과 심리적 안녕감 하위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는 <표 1>과 같다.

<표 1>의 결과에 의하면, 부모 애착에서는 아버지 애착(3.53)보다는 어머니 애착(3.63) 정도를 더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과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변인들의 경우에는 모든 변인들에 대하여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West, Finch와 Curran (1995)이 제시한 정규분포 기준(왜도 2, 첨도>7의 경우 심한 비정규분포)을 참조할 때,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은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주요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N=564)

잠재 변인	측정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애착	부애착	3.53	.74	-.31	-.29
	모애착	3.63	.72	-.33	-.27
학교생활적응	학습동기	3.25	.83	-.15	-.24
	학교	3.33	.98	-.27	-.26
	친구	3.82	.73	-.48	.11
	교사	3.40	.93	-.20	-.43
심리적안녕감	자아수용	3.07	.79	.05	-.19
	대인관계	3.71	.87	-.46	-.13
	삶의목적	3.29	.67	.10	.04
	환경지배	3.17	.72	.03	.39

다음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애착, 학교생활적응 및 심리적 안녕감 하위변인들간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이다. 결과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위의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변인들간의 상관은 .11(p<.001)에서부터 .70(p<.001)까지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애착과 모애착간의 상관은 .70(p<.001)으로 매우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부애착 및 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간의 상관은 .22(p<.001)에서부터 .35(p<.001)에 분포되어 있어, 부애착과 모애착 정도를 높여 지각할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하고 있다고 볼 수

<표 2> 부모 애착, 학교생활적응 및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N=564)

	1	2	3	4	5	6	7	8	9	10
1.부애착	1									
2.모애착	.70***	1								
3.학습동기	.30***	.30***	1							
4.학교	.22***	.23***	.43***	1						
5.친구	.34***	.35***	.40***	.48***	1					
6.교사	.24***	.26***	.50***	.40***	.39***	1				
7.자아수용	.36***	.45***	.43***	.30***	.30***	.27***	1			
8.대인관계	.32***	.38***	.15***	.27***	.35***	.11***	.33***	1		
9.삶의목적	.33***	.41***	.42***	.28***	.32***	.25***	.51***	.39***	1	
10.환경지배	.35***	.46***	.50***	.27***	.31***	.29***	.63***	.24***	.51***	1

\*\*\*p<.001

있다. 그리고 부애착 및 모애착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상관은 .32( $p<.001$ )에서부터 .46( $p<.001$ )에 분포되어 있어, 부애착과 모애착 정도를 높이 지각할수록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생활적응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상관은 .11( $p<.001$ )에서부터 .50( $p<.001$ )에 분포되어 있어, 두 변인간에 정적인 상관이 나타나고 있다. 즉 학교생활적응을 잘하는 학생일수록 심리적 안녕감 수준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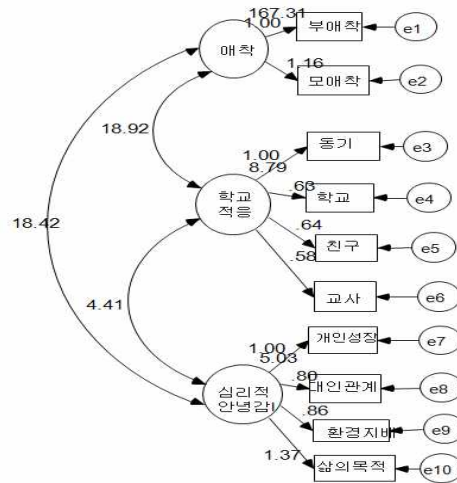
### 2. 부모애착, 학교생활적응, 심리적 안녕감의 측정모형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잘 설명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모형을 분석하였다(<표 3>, [그림 2]). 공분석 구조분석에서 계수의 추정방법으로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으며, 측정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RMSEA=.094$ ,  $CFI=.933$ ,  $NFI=.901$ ,  $IFI=.916$ ,  $CFI=.916$ 으로 나타나 적합도 지수들이 기준을 충족시켜 모형의 적합성을 증명하였다.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에 대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있으며, 측정모형은 [그림 2]와 같다.

<표 3>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잠재 변수	측정변수	B	$\beta$	SE	t
애착	부애착	1	.763	-	-
	모애착	1.163	.912***	.081	14.45
학교 생활적응	학습동기	1	.713	-	-
	학교	.628	.637***	.051	12.44
	친구	.642	.653***	.051	12.68
	교사	.582	.620***	.048	12.17
심리적 안녕감	개인성장	1	.672	-	-
	대인관계	.802	.519***	.076	10.50
	환경지배	.861	.668***	.066	12.96
	삶의 목적	1.371	.764***	.097	14.16

\*\*\* $p<.001$



[그림 2]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 3. 구조모형 분석: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측정모형을 통해 측정변수가 잠재변수를 적합하게 측정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알아보기 위해 구조모형을 분석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의 결과는 아래의 <표 4>에 제시되었다.

<표 4>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GFI	TLI	NFI	CFI	RMSEA
.933	.916	.901	.916	.0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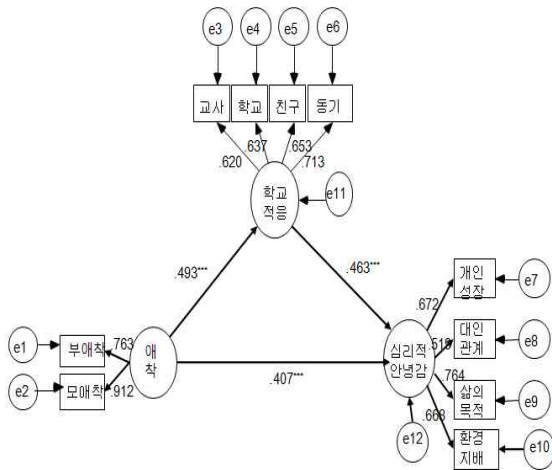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최종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에서 GFI, TLI, NFI, CFI가 모두 .90이상이고 RMSEA도 .094로 나타나, 본 연구의 구조모형은 경험적 자료에 잘 부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 본 연구에서 모형의 경로계수에 대한 검정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으며, 표준화 회귀계수로 표현된 최종경로모형은 [그림 3]과 같다.

<표 5>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 변인들에 대한 구조모형의 경로계수

경로내용	B	$\beta$	SE	t
학교생활적응 ← 애착	1.514	.493***	.179	8.439
심리적 안녕감 ← 학교생활적응	.120	.463***	.017	7.156
심리적 안녕감 ← 애착	.324	.407***	.045	7.261

\*\*\*p<.001



[그림 3]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 변인들의 관계 경로

각 변인들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애착은 학교생활적응( $\beta=.493, p<.001$ )에,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심리적 안녕감( $\beta=.493, p<.001$ )에 각각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표 5>). 즉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애착에 대한 수준이 높을수록 교사, 학교, 친구, 학습동기의 적응에 대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높았으며,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성장, 대인관계, 삶의 목적, 그리고 환경지배와 같은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애착, 학교생활적응의 직·간접 효과와 전체 효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전체효과
애착	.407	.229	.635
학교생활적응	.463	-	.463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본 구조모형에서 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407로 나타났으며, 학교생활적응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463으로 나타났다. 애착은 또한 학교생활적응을 매개하여 심리적 안녕감에 간접적으로 .229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전체효과는 애착이 .635, 학교생활적응이 .463으로 나타나 심리적 안녕감에 주는 효과는 학교생활적응보다 애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Ⅲ.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애착, 학교생활적응,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변인들간의 상관분석 결과, 각 변인들간의 상관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의 변인들간의 상관은 .11( $p<.001$ )에서부터 .70( $p<.001$ )까지 분포되어 있었다. 부애착과 모애착간의 상관은 .70( $p<.001$ )로 매우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었으며, 부애착 및 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간의 상관은 .22( $p<.001$ )에서부터 .35( $p<.001$ )에 분포되어 있어, 부애착과 모애착 정도를 높이 지각할수록 학교생활적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애착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긍정적인 상관에 대한 여러 연구(신현숙,



임말란, 2005; 이사라, 박혜원, 2005; 조미형, 최상미, 엄태영, 2006; 조은정, 2009; 허재경, 김유숙, 2005; Jacobsen & Hofmann, 1997; Kenny & Donaldson, 1991; Larose & Boivin, 1998; Mattanah, Hancock, & Brand, 2004; Vivona, 2000)들을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부애착 및 모애착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상관은 .32( $p < .001$ )에서부터 .46( $p < .001$ )에 분포되어 있어, 부애착과 모애착 정도를 높일수록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높아지고 있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를 연구한 여러 연구(김정문, 2008; 박인숙, 2005; 유경자, 2005; 이미숙, 2010; 정민외, 2008; 황아람, 2010)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학교생활적응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상관을 보면, 본 연구에서는 .11( $p < .001$ )에서부터 .50( $p < .001$ )에 분포되어 있었다. 즉, 학교생활적응을 잘하는 학생일수록 심리적 안녕감 수준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여러 연구(김기형, 2006; 박지영, 2007; 이은우, 2006)와 일치하고 있다. 이상의 상관분석 결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애착정도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도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모형을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이론적으로 설정하고([그림 1] 참조), 이 모형이 경험적 자료에 얼마나 잘 부합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적합도 지수를 산출하여 구조모형을 산출하였다. 구조모형을 분석해 본 결과 적합도 지수가 양호하게 나타나 본 연구의 구조 모형은 경험적 자료에 잘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구조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애착은 학교생활적응( $\beta = .493$ ,  $p < .001$ )에,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심리적 안녕감( $\beta = .493$ ,  $p < .001$ )에 각각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표 5>). 즉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애착

에 대한 수준이 높을수록 교사, 학교, 친구, 학습 동기의 적응에 대한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정도가 높았으며, 그리고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개인성장, 대인관계, 삶의 목적, 그리고 환경지배와 같은 심리적 안녕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애착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행동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본 구조모형에서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전체효과는 애착이 .635, 학교생활적응이 .463으로 나타나 심리적 안녕감에 주는 효과는 학교생활적응보다 애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부모애착 정도와 학교생활적응 행동이 중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상관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에 덧붙여, 애착이 심리적 안녕감에 주는 영향에 대해 논의해 보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은 친구들과 자연스러운 대화를 할 수 있고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이므로 문제행동을 적게 나타내지만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표상 때문에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llen, Bell, Moore, & Kupermine, 1998). 즉 안정되지 못한 내적 작동모형을 지니고 있는 개인들은 부정적인 정서를 합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더 많이 불안하고 적대적이어서(김정문, 2008), 심리적 안녕감이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부모애착에 대한 지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학교생활적응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여러 연구들에서 심리적 안녕감과 학교생활적응간에 정적인 관계를 보고한 바 있다(문영주, 2009; 문은식, 김충희, 2002; Shek, 1997, 2002).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적응 여부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준다는

점은 여러 연구들(김기형, 2006; Klemens & Bikos, 2009; Searle & Ward, 1990; Tse, & Yip, 2009)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심리적 안녕감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가(Ryff, 1989)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때, 학생들이 학교라는 사회에서 잘 기능한다는 것은 대인갈등이나 우울 등을 예방할 수 있다(Tse, & Yip, 2009)는 의미이기도 하다. 즉, 주위의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거나 상대방과 갈등관계에 놓여 있을 경우, 그리고 학교 수업적응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학생들은 주위 환경에 대한 통제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각은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교 적응 기술을 향상시킨다면 심리적 안녕감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Klemens & Bikos, 2009).

마지막으로 부모애착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부모애착은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여러 연구들(신현숙, 임말란, 2005; 이사라, 박혜원, 2005; 조미형, 최상미, 엄태영, 2006; 조은정, 2009; 허재경, 김유숙, 2005; Jacobsen & Hofmann, 1997; Kenny & Donaldson, 1991; Larose & Boivin, 1998; Mattanah, Hancock, & Brand, 2004; Vivona, 2000)을 통해 나타난 바와 같이, 유아기와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기에 이르러서도 부모애착은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애착, 학교생활적응, 심리적 안녕감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다. 즉, 청소년의 부애착과 모애착에 대한 지각 정도가 높고,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아질수록 심리적 안녕감도 높게 나타난다.

둘째,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변인들간의 구조모형 분석을 통해, 부모애착과 학교생활

적응은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론을 통해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애착에 대한 그들의 지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아울러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 참고 문헌

- 고재홍·조기영(2003). 청소년의 긍정적 착각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11(1), 166~181.
- 곽윤정(2010). 청소년을 위한 정서지능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정서지능과 심리적 안녕감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7(4), 263~281.
- 김기형(2006).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가족관계, 교우관계, 학교적응도와 심리적 안녕감과와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일(2004).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평가체계: 평가와 상담·지원 서비스의 연계, 청소년상담문제 연구보고서 50, 47~67.
- 김명소·김혜원·차경호·임지영·한영석(2003). 한국 성인의 행복한 삶의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415~442.
- 김민정(2006). 낙관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사회적 지지를 매개 변인으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리(2009). 감사성향이 안녕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인지적 정서 조절 전략을 매개로,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의철, 박영신(2004). 청소년과 성인의 삶의 질 인식에 대한 토착심리 분석: 가정, 학교, 직장, 여가생활을 중심으로, 학교심리학회지: 건강, 9(4), 973~1002.
- 김정문(2008).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5(6), 197~224.
- 김혜원·홍미애(2007).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질 정도와 설명요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14(2),

- 269~297.
- 노혜숙·신현숙(2008). 청소년의 감사성향과 심리적 안녕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5(2), 147~168.
- 문영주(2009). 사회복지 전공 대학생의 학업동기와 학교적응관계에서 심리적 안녕의 매개효과 연구, 청소년학연구, 16(9), 31~51.
- 문은식(2002). 청소년의 학교적응행동에 관련되는 사회·심리적 요인들의 구조적 분석,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은식(2007). 중학생의 심리적 안녕에 관련되는 사회, 동기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교육심리연구, 21(2), 459~475.
- 문은식·김충희(2002).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교육심리연구, 16(2), 219~241.
- 박인숙(2005). 청소년의 애착경향성이 사회적 지지요청 및 지지지각, 그리고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영(2007). 부모의 학업성취압력과 아동의 부모신뢰가 심리적 안녕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혜정(2007). 자아통제, 자기신뢰 및 교사에착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2), 357~373.
- 세계일보(2009). [죽음의 문턱에 선 아이들] '우울 증 늑'에 쉽게 빠져...청소년 정신건강 적신호, 2009. 11. 01.
- 신주연·이윤아·이기학(2005). 삶의 의미와 정서 조절 양식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7(4), 1035~1057.
- 신현숙(2004). 가정환경 역경에 적응 유연한 청소년의 보호요소에 관한 연구: 학교적응,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5(11), 141~161.
- 신현숙·임말란(2005).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수평적 대인관계 성향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2(1), 103~126.
- 양명순(2007). 자아해석 양식과 우울 및 심리적 안녕감과의 관계 :자아 존중감·자아존중감의 안정성의 매개 효과,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명순, 하정희(2006). 자아해석 방식이 우울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 갈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17(2), 85~105.
- 양병환(2003). 초등 교사들의 심리적 안녕감 :그 구조 및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 교육학연구, 41(4), 285~309.
- 옥정(1998). 청소년기 애착 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 지각된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경자(2005). 애착이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은희 (1990). 기혼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자율성 발달 유형과 결혼 만족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주연·박경(2010). 자기애와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에서 감사성향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7(4), 1~23.
- 이경화·정혜영(2007). 중학생의 스트레스 및 통제소재와 학교적응의 구조분석, 수산해양교육연구, 19(1), 8~18.
- 이미숙(2010). 청소년이 부모애착과 신체 존중감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사라·박혜원(2005). 중국 조선족 아동의 어머니와의 애착이 자아개념, 또래관계 및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3(9), 109~127.
- 이연숙(2005). 가족지지가 우울과 불안에 주는 영향의 매개모형에 따른 Satir 가족 재구성 집단 상담 효과,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경(1995). 지각된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의 자아개념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우(2006). 대학생의 정서지능, 자기효능감, 심리적 안녕감이 대학생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민(2009).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자아정체감, 청소년의 학교적응 간의 관계구조, 한국생활과학회지, 18(5), 1021~1033.
- 이흥표·이흥석(2006). 지각된 사회적 평판이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및 성차, 한국심리학회지 : 건강, 11(2), 329-344.
- 이희영·하경선(2010).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분리 및 부모애의 애착이 중학생의 학교적응유연성

- 에 미치는 영향, 수산해양교육연구, 22(2), 205~217.
- 전혜리(2007). 아동의 성격 특성,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민·이미라·노안영(2006).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7(4), 1023~1038.
- 정기영(2006). 청소년의 휴대폰 중독 실태 및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분석,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미형·최상미·엄태영(2006). 남녀 청소년의 부모·친구·교사에착과 학교생활적응이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5, 81~97.
- 조은정(2009). 청소년의 자아효능감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부모, 교사, 친구 애착의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15(6), 299~322.
- 주경희(2010). 초등학생이 지각한 어머니의 의사소통유형 및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경호(2004). 한국과 미국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1(3), 321~337.
- 채수옥(2010). 초등학생의 지각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태민(2008). 심리적 안녕감의 뇌교육적 함의, 뇌교육연구, 5(2), 47~75.
- 허재경·김유숙(2005). 부모애착안정성과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4), 483~493.
- 홍세희(2000).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7.
- 황아람(2010).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기본심리욕구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insworth, M. D. S., Blehar, M. C., Waters, E., & Wall, S.(1978). *Patterns of attachment :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 Erlbaum.
- Allen, J. P., Bell, K. L., Moore, C., & Kupermine, G. P. (1998). Attachment and adolescent psychosocial function, *Child Development*, 69, 406~419.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s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4.
- Armsden, G.C., & Greenberg, M.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3.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 1.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Books.
- Cohn, D, A., Patterson, C. J., & Christopoulos, C. (1991) The family and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 315~346.
- Eccles, J. S., Wigfield, & Schiefele, U. (1998). Motivation to succeed. In W. Damon(Series Ed.) & N. Eisenberg(Vol.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3, 1017~1096, New York: Wiley.
- Jacobsen, T and Hoffman, V., 1997: Children Attachment Representations: Longitudinal Relations to School Behaviour and Academic Competency in Middle childhood and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33(4), 703~701.
- Kenny, M. E., & Donaldson, G. A. (1991). Contributions of parental attachment and family structure to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of first-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479~486.
- Klemens, M, J., & Bikos, L. H. (2009).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ociocultural adaptation in college -aged, repatriated, missionary kids. *Mental Health, Religion & Culture*, 12(7), 721~733.
- Larose, S., & Boivin, M. (1998). Attachment to parents, social support expectations, and socioemotional adjustment during the high school-college transition,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8, 1~27.
- Liu, Q., Shono, M., & Kitamura. T. (2009). Psychological well-being, depression, and anxiety in Japanese university students, *Depression and Anxiety*, 26, 99~105.

- Mattanah, J. F., Hancock, G. R., & Brand, B. L. (2004). Parental attachment, separation individuation, and college student adjustment: A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of mediational effec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1*(2), 213~225.
- Ryan, R. M., Stiller, J., & Lynch, J. H. (1994). Representations of relationships to teachers, parents, and friends as predictors of academic motivation and self-esteem,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4*, 226~249.
- Ryff, C. D., & Keyes, C. J. M. (1995).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revisi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549~559.
- Ryff, C.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6), 1069~1081.
- Searle, W., & Ward, C. (1990). The prediction of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adjustment during cross-cultural transi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4*, 449~464.
- Shek, D. T. L. (1997). Family environment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well-being, school adjustment, and problem behavior: A pioneer study in a Chinese context,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8*(1), 113~128.
- Shek, D. T. L. (2002). The relation of parental qualities to psychological well-being, school adjustment, and problem behavior in Chinese adolescents with economic disadvantage,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0*, 215~230.
- Tse, W. S., & Yip, T. H. J. (2009). Relationship among dispositional forgiveness of others, interpersonal adjust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mplication for interpersonal theory of dep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6*, 365~368.
- Vivona, J. (2000). Parental attachment styles of late adolescents: Qualities of attachment relationships and consequences for adjust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 316~329.
- 
- 논문접수일 : 2010년 11월 08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0년 12월 07일  
2차 - 2011년 01월 02일
  - 게재확정일 : 2011년 01월 29일